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조의 연구:

「조신」을 중심으로

김정경

건국대학교 인문학 전임연구원, 고전산문 전공

bambee27@hanmail.net

- I. 머리말
- II. 「조신」의 꿈과 현실: 상호 소통이 가능한 시공간적 통합체
- III. 신성친견과 사찰연기: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깨달음
- IV. 맺음말

I. 머리말

『삼국유사』 탐상편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는 의상법사(義湘法師), 원효법사(元曉法師), 굴산조사 범일(崛山祖師 梵日), 선사아행(禪師阿行)과 결승(乞升) 그리고 조신(調信)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이 다섯 편의 이야기는 한 조에 실려 있지만 낙산이라는 지역과 관련된다는 사실 외에 그것들 간의 공통점이나 일관된 체계를 발견하기 힘들다. 다섯 편의 이야기가 한데 묶여 있는 이유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다섯 편의 이야기들이 배열된 순서 역시 분명하지 않다. 고려를 배경으로 하는 「선사아행과 결승」편이 신라 말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조신」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대체로 이 다섯 편의 이야기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음 친견 여부로 의상과 원효의 차이를 설명하거나, 1) 주체의 자질 혹은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의상·원효·범일·조신의 위계를 정립하는 등의 논의가 대표적이다.²⁾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에서 아쉬운 것은 대부분 다섯 이야기 가운데 몇 개만을 따로 떼어내 검토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물론 이 다섯 편 사이에 인과적이거나 연대기적 관계가 쉽게 추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³⁾ 하지만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삼국유사』의 전체 체계와 각 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과 무관할 수 없는 일이기, 한데 묶여 있는 다섯 편 모두를 관통하는 일관적 체계를 설명하는 작업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 나온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 관한 연구들은 이런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유광수는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이야기가 모두 첫 번째 만남에서는 제대로 깨닫지

1) 김열규, 「〈낙산이대성〉과 그 신비체험의 서술구조」, 『삼국유사 연구(상)』(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107쪽.

2) 조동일, 「삼국유사 불교설화와 숭고하고 비속한 삶」, 『삼국유사 연구(상)』(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122-123쪽; 유광수,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의 의미」, 『연세어문학』 32(2000), 142-145쪽.

3) 조현우,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의 은유적 이해」, 『한국고전연구』 11집(2005), 188쪽.

못한 주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⁴⁾ 또한 고운기와 유광수는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 실린 다섯 편의 이야기 가운데 평범한 중생의 모습을 보이는 「조신」이야말로 현실성과 내용의 충실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했다.⁵⁾ 다만 이 논의들이 다섯 편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가령 유광수의 경우 기존 논의에서 많이 제외되었던 「조신」을 포함시켜 논지를 전개하고는 있지만 「아행과 결승」편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신연우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조신」이 생략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착안하고 이를 포함하여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일연의 또 다른 저술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의 내용을 토대로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를 분석하는데, 정(正)과 편(偏)이라는 기본 개념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인식하고 그들의 관계성을 통해 수행의 단계를 나타내는 조동오위와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를 연관지어 이해하려고 한 것이다.⁶⁾ 그리하여 기존의 여러 논의들에서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조신」을 “조동오위의 마지막 수행단계이자 깨달음과 실천의 단계인 겸중도(兼中到), 조화의 핵심에 도달한 상태, 중생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부처의 수행의 최고 경지를 드러내”⁷⁾는 것으로 보고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를 일관성 있는 한 편의 단일 설화로 읽어낸다.

조현우 역시 “『삼국유사』 전체의 체계나 지향”⁸⁾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일연의 전기와 사상 등 작품 외적인 사실에 주목한 연구들과는 다르게 텍스트 내적인 구성 원리에 초점을 맞춘 논의에서, 그는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이 “가림의 초월을 통한 깨달음의 획득”이라는 공통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다양한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섯 개의 서사가 모두 동등한

4) 유광수, 위의 논문(2000), 143쪽.

5) 고운기, 「일연의 세계인식과 시문학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1993); 유광수,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의 의미」, 『연세어문학』 32호(2000).

6) 신연우, 「曹洞五位의 시각으로 본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의 이해」, 『한국사상과 문화』 제18집(2002), 283-285쪽.

7) 신연우, 위의 논문(2002), 283-285쪽.

8) 조현우, 앞의 논문(2005), 190쪽.

지위와 기능을 가진 ‘은유로서의 서사’라고 주장한다.⁹⁾

다섯 편의 이야기를 일관된 체계로 이해하려는 위와 같은 시도들은 다섯 편의 이야기를 위계적으로 파악하는가 혹은 동등하게 이해하는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작업에서도 「조신」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 대개의 연구자들이 여전히 「조신」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석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다양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신」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 실려 있는 다른 네 편의 이야기들과의 관계를 명료하게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 실린 이야기들이 모두 ‘낙산’이라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 항목으로 한데 묶인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이다.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이야기들은 모두 ‘낙산’이라는 지역의 신성성을 밝힌 이야기이거나 혹은 그곳에 절이 세워진 원인과 유래 등을 설명한 ‘사찰연기설화’¹⁰⁾로서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이 이야기들에 내재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낙산’이라는 지역과 관련하여 각각의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검토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고에서는 특히 「조신」을 중심으로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다섯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적 본질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한다.¹¹⁾ 이는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를 그 조가 지향하는 의미를 구현하는 설화들의 반복으로 읽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¹²⁾ 이를 통해 「조신」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된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뿐만 아니라

9) 조현우, 위의 논문(2005), 207-208쪽.

10) “緣起는 명칭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사실 때문에 이름이 인연지어지고, 다시 그 이름 때문에 그 사실이 기념되는 유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불교 교화전승 가운데 하나이다.” 황폐강, 『新羅佛敎說話研究』(일지사, 1975), 158쪽; 오대혁, 「『調信傳』의 구조와 형성 배경」, 『韓國文學研究』 제20집(1998), 355쪽에서 재인용.

11)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논자들은 조신설화의 사찰연기설화적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꿈속에 묻었던 아이를 파보니 돌미륵이 나왔더라든가, 조신이 정토사를 세웠다는 등의 내용이 이 텍스트를 ‘사찰연기설화’로 보게 한다는 것이다. 오대혁, 위의 논문(1998), 355쪽.

12) 송효섭, 「『삼국유사』의 기호체계」, 『설화의 기호학』(민음사, 1999), 69쪽.

『삼국유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적절한 인식론적 틀을 구상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조신」의 꿈과 현실: 상호 소통이 가능한 시공간적 통합체

「조신」은 인간의 욕망과 그 욕망의 부질없음을 인간의 일생을 통해 복합적으로 보여준 텍스트로 널리 알려져 있다.¹³⁾ 먼저 이 이야기의 대체적인 윤곽을 그려보자면, 조신은 태수 김흔공의 딸을 좋아하여 낙산사 관음보살에게 그녀와 관계 맺기를 여러 번 빌었다. 하지만 김씨 낭자에게 배필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신은 관음보살을 원망하다 불당에서 울며 잠이 든다. 그리고 꿈속에서 김씨 낭자를 만나 소원을 성취한다. 조신과 김씨 낭자는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었으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조신과 김씨 낭자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아이를 잃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한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의복도 많고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얼마 안 되는 의복도 당신과 나누어 입으면서 함께 산 지 15년에 정이 맺어져 매우 친밀해졌으며, 은애도 굳게 얽혀졌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쇠약해져 생긴 병이 해마다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가 날로 닥쳐오니, 결방살이와 보잘것없는 음식도 남에게 빌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역경을 당하면 버리고 순경에 있으면 친하고 하는 것은 인정상 차마 못할 짓이지만, 행하고 그치고 하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것도 운수가 있는 것이니, 제발 지금부터 헤어집시다.”

조신은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기 아이 둘씩을 맡아 바야흐로 떠나려 하니 여인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막 헤어져 길을 떠나려 할 때 그만 꿈을 깨었다. 이때 등잔불은 깜박거리고 밤이 바야흐로 새려 했다.¹⁴⁾

13) 정소영,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인간구원」, 『한국언어문학회』 59권 12호(2006), 304쪽.

14) 일연, 이재호 역, 『삼국유사』(술, 1997), 123-124쪽.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가난과 질병으로 이별을 결심한 조신과 김씨 낭자가 “막 헤어져 길을 떠나려 할 때” 조신은 꿈에서 깨어난다. 그는 꿈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했다. 하지만 꿈꾸고 난 후 “한평생 괴로움을 겪은” 것만 같고, “탐염의 마음도 깨끗이 얼음 녹듯” 사라졌음을 깨닫는다. 이 부분이 조신의 첫 번째 깨달음의 순간이다.

독자는 주인공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으나 그 결과가 고통뿐임을 깨닫는 이 부분을 통해 「조신」의 주제를 “인생의 무상함”¹⁵⁾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꿈’이라는 서사장치도 이러한 이해를 돕는데, 깨고 나면 그뿐인 ‘일장춘몽’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한 것 자체가 삶의 덧없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조신」의 말미에 덧붙은 논평과 찬시 역시 이 이야기의 주제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전기를 읽고서 책을 덮고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니 하필 조신사(調信師)의 꿈만이 그렇겠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속세의 즐거움만 알고서 기뻐 날뛰고 애쓰고 있으나 이것은 다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¹⁶⁾

잠시 즐거울 땐 한가롭더니
어느덧 근심 속에 늪어버렸구나
쫄쌀밥이 다 되기 전에
인생이란 한 꿈인 줄을 깨달았구나¹⁷⁾ (밑줄 필자)

위의 인용에서 보이듯 「조신」의 논평자는 꿈속에서의 조신의 삶이 “속세의 즐거움만 알고서 기뻐 날뛰고 애쓰는” 사람들의 삶과 같으며, 이는 결국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일갈한다. 또한 찬시를 통해 “인생이란 한 꿈”이라고 정리한다. 이처럼 「조신」의 주제를 인생무상으로 해석하는 서술자의 논평과 찬시는 「조신」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온 몽유서사들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조신」이 우리 고전 서사 가운데 꿈 이야기의 원형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현실(입몽) - 꿈(몽중) - 현실(각몽)’의 명확한 구조가 여타의 몽유서사에 공통된 특징이라는 점과 더불어 ‘몽중’에서의 체험이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인식, 즉 삶의 허무를 깨닫게 하는 장치라는 해석이 이후에 생산된 몽유 서사를

15) 정소영, 앞의 논문(2006), 308쪽.

16) 『삼국유사』, 125쪽.

17) 『삼국유사』, 125쪽.

이해하는 데에도 적절한 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조신」의 ‘꿈은 인간 욕망의 허망함과 덧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신」의 꿈은 여타의 몽유서사에 등장하는 꿈과는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가령 이 이야기에서 꿈과 꿈 밖의 세계는 허구세계와 사실세계로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아침이 되니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지고 망연(惘然)하여, 전혀 세상에 뜻이 없어져 사는 것도 벌써 싫어지고, 한평생 괴로움을 겪은 것 같았다.¹⁸⁾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희어지고”라는 부분이다. 꿈을 꾸고 난 아침에 보니 머리털이 모두 희어졌더라는 것은 꿈속에서 보낸 50년이 현실에서도 흘렀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꿈속의 시간이 현실에서도 흘러갔다는 것이다.¹⁹⁾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신」에 나타난 꿈의 세계는 현실과 무관한, 현실과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마치 ‘피비우스의 띠’처럼 현실과 연결된, 현실의 시공간 논리가 그대로 관통하는 세계라는 것이다. 요컨대 이 텍스트에서 꿈과 현실은 단일한 시공간의 논리를 따르고 있으며, 따라서 김씨 처녀와 조신이 함께한 삶은 꿈인지 현실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조신」에서는 꿈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꿈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여타의 몽유서사들과 구별되는 「조신」만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가령 『구운몽』의 경우만 보아도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운몽』에 나타난 꿈속의 시공간과 현실의 시공간은 전혀 별개의 공간이며, 따라서 꿈속 세계의 흔적은 꿈을 깨고 난 뒤의 현실 세계에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달이 마치지 못하여 운기 거두며 노승과 육낭재 간 데 없는지라. 대경 대혹하여 정신을 정하여 보니 충대 누각은 간 데 없고, 그 몸을 돌아보니 홀로 소암중 포단 우에 앉아 향로의 불은 사라지고 달이 서봉에 있는지라. 스사로 그 머리를 만져보니 새로 깎은 머리 승승하고 백팔연취 목에 있는지라, 정신이 충충하여 그 몸을 생각하니 대승상 위에는 아니오 연화 도장의 성진 노화상이라. 생각하니 처음에 사부의 경세를

18) 『삼국유사』, 124쪽.

19) 김정경, 「연기론의 서사화」, 『시학과 언어학』 2호(2001), 236쪽.

입어 역사를 따라 풍도에 가며 세상에 나가 양가재 되며, 일즉 장원이 되어 나가 연삼국을 건너리고, 들면 백관을 통집하고, 양공주 육낭자로 더불어 가무 주배로 신흠 행락함이 다 일장춘몽이라, 이에 가로되,²⁰⁾ (밑줄 필자)

조신은 꿈꾸고 난 뒤 머리가 하얗게 세었다. 하지만 성진의 ‘새로 깎은 머리는 여전하다. 성진의 꿈속에서 흐른 몇 십 년은 현실에서는 단 몇 시간에 불과한 시간이었을 뿐이다. 조신의 꿈속 행위는 현실에 구체적인 증거물로 나타나지만, 『구운몽』에서 꿈속 행위는 현실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아야 성진의 꿈이 인생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구운몽』에서 꿈과 현실은 분명하게 구별되고, 실재하는 것은 현실, 즉 연화도장에서의 성진의 삶뿐이다. 다시 말해서 성진의 꿈은 일장춘몽임이 분명하지만, 「조신」의 꿈은 현실과 “상호 교류가 가능한 유연한 경계”를 지닌, 실재하는 공간이다.²¹⁾ 따라서 현실과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 「조신」의 꿈은 현실과 명확하게 분리되어 존재하는 『구운몽』의 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리라는 전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몽유 서사 속에 배경으로 제시되는 꿈속 세계의 성격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은 아래 인용할 『금오신화』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어느 날 박서생은 자기의 거실에서 밤에 등불을 돋우고 『역경』을 읽다가 베개에 기대어 옷을 입은 채 잠이 들었는데, 문득 한 나라에 이르니 곧 바다 속의 한 섬이었다.²²⁾

서생은 하직하고 문 밖으로 나와 수레에 올랐다. 그때 수레를 끌던 사람이 발을 헛디뎠서 수레가 넘어졌다. 그 바람에 박서생도 쓰러졌다. 놀라 일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눈을 떠서 자세히 살펴보니 서책은 책상 위에 던져져 있고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그는 감각 속에 의아히 생각하고 있다가 장차 죽을 일을 염두에 두고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는 데 마음을 기울였다. 두서너 달 후에 박서생은 병을 얻었는데 결코 살아나지 못할 것을 알았으므로 의원도 무당도 사절하고는 드디어 세상을 떠났다. 그가 막 세상을 떠나려던 날 저녁에 이웃집 사람의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너희 이웃집 박선생은 곧 염라왕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한다.²³⁾ (밑줄 필자)

위의 인용문은 『금오신화』 중 「남쪽 염부주의 이야기(南炎浮洲志)」의

20) 김만중, 박성의 註釋, 「九雲夢」, 『九雲夢·謝氏南征記』(정음사, 1986), 81-83쪽.

21) 조현우, 앞의 논문(2005), 24쪽.

22) 김시습, 이재호 역, 「남쪽 염부주의 이야기」, 『금오신화』(술, 1998), 130쪽.

23) 김시습, 이재호 역, 위의 책(1998), 147쪽.

일부이다. 이 작품 역시 몽유서사로서 꿈과 현실의 교섭 양상이 잘 드러난다. 이 텍스트는 이계로의 이동이 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이계와 현실이 별개의 시공간이라는 면에서 『구운몽』과 유사하고, 꿈속에서 겪은 일들이 현실 세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조신」과 유사하다. 「조신」에서는 꿈속 세계와 현실 세계가 동일한 공간인데 반해, 「남쪽 염부주의 이야기(南炎浮洲志)」에서 꿈과 현실 세계는 『구운몽』에서처럼 엄격하게 구별되는 “피차 사는 지역이 다른” 곳-박서생이 사는 ‘경주와 “바다 속의 한 섬”-이다. 또한 꿈속에서의 삶이 흔적조차 남지 않는 『구운몽』과는 다르게 이 작품에는 「조신」에서처럼 꿈속에서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실현되거나 꿈 세계에 다녀온 징표가 현실에 존재한다. 요컨대 「남쪽 염부주의 이야기(南炎浮洲志)」와 『구운몽』 그리고 「조신」에 제시된 꿈과 현실 세계는 각기 나름의 특징을 가지며 서로 변별되는 세계 인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조신」을 ‘현실-꿈-현실’의 구조로 읽는 것은 여러 몽유서사 가운데 이 이야기만이 갖는 특징을 간과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조신의 첫 번째 깨달음에 주목해 왔으며, 이는 꿈과 현실을 분리해서 이해한 결과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신」은 꿈과 현실이 엄격하게 분리된 세계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텍스트에 드러난 대로라면 「조신」의 꿈과 현실은 동일한 시공간 안에 놓여 있다.

결론적으로 ‘현실-꿈-현실’의 구조로 조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대부분의 논의들은 이후에 생산된 여러 몽유서사의 꿈과 「조신」의 꿈 사이의 중요한 차이를 간과하게 만든다. 「조신」의 꿈의 성격 역시 일장춘몽이며,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 또한 인생무상의 성격을 갖는다는 논의들은 보편적 몽유서사의 구조를 미리 상정하고 이를 「조신」에도 그대로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는 「조신」의 말미에 붙은 논평자의 발화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본에 없던 논평자의 발화와 후대 연구자의 시각이 「조신」을 나머지 네 편과 구분지어 이해하도록 강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여타의 몽유서사들과 구분되는 「조신」만의 독특한 꿈의 논리는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 다섯 편의 저류에 흐르면서 이 작품들을 단일한 하나의 체계로 묶어주는 논리적 핵심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Ⅲ. 신성친견과 사찰연가: 성스러운 공간에 대한 깨달음

조신은 꿈속에서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지만, 이후 겪게 된 극심한 가난과 그로 인한 고통을 통해 욕망의 성취가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는다. 이러한 해석이 꿈과 현실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지만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조신」에서 꿈과 현실의 관계는 이렇듯 단순, 명쾌하지만은 않다. 잠든 자리에서 그대로 꿈속의 이야기가 펼쳐진 다거나, 꿈속에서 흘러간 50여 년의 시간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흘렀다는 점, 그리고 조신이 꿈에서 깬 후 꿈속에서 죽은 자식을 묻었던 곳에 다시 찾아가보니 그 자리에 돌부처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처럼 꿈과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해도, 조신의 삶에 대한 태도가 꿈을 꾸고 난 이후 명백하게 달라졌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때마침 명주 해령(蟹嶺)을 지나는데 열다섯 살 된 큰 아이가 갑자기 굶어 죽어 통곡하며 길가에 묻어주었다.²⁴⁾

돌아와 해현(蟹峴)에 묻은 아이를 파보니 그것은 바로 돌부처였다. 이것을 물로 씻어 부근의 절에 모셨다. 서울로 돌아가 장원의 소임을 그만두고 사재를 들여 정토사(淨土寺)를 세우고 착한 일을 근심히 닦았다. 그 후에 세상을 어디서 마쳤는지 알 수 없다.²⁵⁾

우선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다른 이야기들과 「조신」을 공통적으로 묶을 수 있는 특질을 찾아보도록 하자.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조신이 신성을 보고도 미처 알지 못하고 그것이 부처였음을 뒤늦게야 깨닫는 위의 인용 부분에 주목했다. 조신이 ‘해현에 묻은 아이를 파’본 후 깨달은 것은 그 아이가 ‘돌부처’, 즉 신성이라는 사실이다. 조신은 자신의 아이가 부처였다는 사실을 그 아이와 함께 있을 때에는 몰랐으나, 이후 꿈에서 깨어난 뒤 아이를 묻은 장소에서 돌부처를 발견하고는 깨닫는다. 그리고 그러한 뒤늦은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이끄는 데, 돌부처를 절에 모신 뒤 정토사를 세우고 ‘착한

24) 『삼국유사』, 122쪽.

25) 『삼국유사』, 124-125쪽.

일을 근실히 닦는 것이다. 이처럼 조신의 삶은 자신의 아이가 신성임을 깨닫는 것, 즉 ‘돌부처’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본다면 조신은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 속해 있는 이야기 속의 의상, 원효 또는 범일과 매우 유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모두 보살을 만난 때에는 그가 보살임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깨닫기 때문이다. 의상은 관음의 용모를 보고도 관음의 진신이 거주함을 알지 못하며, 관음보살이 말한 대나무가 없어진 “그제야 관음의 진신이 거주함을 알았다.”²⁶⁾ 원효 역시 “논 가운데 흰옷을 입은 한 여인”과 “다리 밑에서 개짐을 씻고 있던 한 여인”을 봤을 때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다가,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전에 보았던 신이 벗겨진 것을 보고 “그제야 전에 만났던 성녀(聖女)가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²⁷⁾ 범일 역시 명주에서 한 중을 만났을 때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꿈에서 그를 다시 만난 뒤 전에 보았던 중이 “정취보살의 불상”임을 깨닫는다. 이처럼 처음 신성한 존재를 만났을 때에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다가 뒤늦게 그가 신성한 존재임을 깨닫는 이야기들이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에 여러 편 담겨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조신」을 ‘신성친견담’²⁸⁾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처럼 「조신」을 신성친견담 가운데 하나로 보아 의상, 원효, 범일의 이야기와 함께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행과 결승」의 이야기는 문제로 남는다. 이 이야기는 두 성인의 진용과 두 보주를 몽고병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아행선사와 결승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행선사는 두 보주를 가지고 도망하려 하지만, 결승은 이를 빼앗아 땅에 깊이 묻는다. 그 결과 결승은 죽음을 면하여 보주를 구하는 반면, 아행은 죽고 만다.

그 뒤 100여 년 만에 들불이 이 산까지 번져왔으나 오직 이 관음·정취 두 성인을 모신 불전만은 홀로 그 화제를 면했고, 나머지는 모두 타버렸다. 몽고의 병란 이후

26) 『삼국유사』, 116쪽.

27) 『삼국유사』, 117쪽.

28) 윤예영은 『삼국유사』에서 석가의 진신(眞身), 문수(文殊), 관음(觀音), 정취(正趣) 보살 등이 범속한 인간의 모습으로 화현(化現)하는 이야기들을 ‘신성친견담’으로 범주화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설화 13편을 분류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인간은 정작 만나는 순간은 알아보지 못하고 뒤늦게 자신이 만난 존재가 부처였음을 깨닫는다. 윤예영, 「三國遺事 神聖親見談 研究」,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2쪽.

계축 갑인 연간(1253-1254)에 두 성인의 진용과 두 보주(寶珠)를 양주성으로 옮겼더니 몽고병이 매우 급박하게 쳐들어와, 성이 함락될 지경에 놓여 있었다. 이때 주지 아행선사(阿行禪師) - 옛이름은 희현(希玄) - 이 은합(銀盒)에 두 보주를 넣어 가지고 도망하려 하니, 절의 종 걸승(乞升)이 이것을 빼앗아 땅에 깊이 묻고 맹세했다.

“내가 만약 병란에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면, 두 보주는 마침내 인간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여 아는 사람이 없게 되겠지만, 내가 만약 죽지 않는다면 마땅히 두 보물을 받들어 나라에 바칠 것이다.”

갑인년(1254) 10월 22일에 성이 함락되었다. 아행은 죽음을 면하지 못했으나 걸승은 죽음을 면하여, 적병이 물러간 뒤 두 보주를 땅속에서 파내어 명주도(溟洲道) 감창사(監倉使)에게 바쳤다.²⁹⁾

이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앞선 설화들과 구별된다. 먼저 관음과 정취 두 성인과 두 보주를 모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들불이나 전란 등의 위기가 계속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른 하나는 아행과 걸승 모두 “두 성인의 진용과 두 보주”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행은 죽고 걸승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두 성인의 진용과 보주를 양주성으로 옮긴 후 보주를 가지고 나가려던 아행선사는 죽음을 면치 못한 데 반해, 그것을 땅에 묻어두자고 했던 걸승은 보주와 함께 위험을 피한다. 『삼국유사』에는 이처럼 짝을 이룬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 경우에 두 인물 가운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가령 의상과 원효,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광덕과 엄장 모두는 깨달음에 이르는 노력과 방법을 달리 했지만, 그 결과는 동일했다. 하지만 아행과 걸승의 대립은 끝까지 유지된다. 이렇듯 삶과 죽음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두 인물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두 인물의 가장 큰 차이는 보주의 신성함에 대한 믿음의 유무에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아행은 보주를 지켜주어야 할 것으로 본 데 대해 걸승은 보주의 신성성을 믿고 보주를 지키기 위해 도망을 칠 필요가 없다고, 즉 신성한 보주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데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낙산 지역에 발생하는 잇단 위기를 통해서는 이 지역이 더 이상 신성한 장소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불국토로서의 신라 혹은 신성한 지역으로서 낙산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사실에 불과하다. 두 성인의 진용과 보주가 보관된 그곳은 관음의 진신이 거주하

29) 『삼국유사』, 119-120쪽.

는 곳이 아니라 거주했던 공간인 것이다. 만약 두 보주가 있는 그 지역이 현재에도 여전히 신성한 공간이라면 그곳에 그토록 극심한 재해나 재난이 닥칠 리는 없다. 분명 낙산 지역은 과거 의상이나 원효가 진신을 만났던 그 장소가 아니다. 그렇다면 두 성인의 진용을 모신 불전과 두 보주가 안전하게 지켜진 것은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결승은 자신이 살아남지 않는다면 두 보주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승이 살아남은 것은 두 보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두 보주가 세상에 알려져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곳이 신성한 지역이었음을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행은 두 성인의 진용과 두 보주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긴다. 그러나 결승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두 성인의 진용과 두 보주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아행은 가치가 두 성인의 진용과 두 보주 자체에 있다고 믿은 반면, 결승은 그것을 하나의 기호로, 과거에 이 지역이 신성이 존재했던 곳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하나의 기호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요컨대 두 성인의 진용과 두 보주는 “이 땅”이 성스러운 곳이었음을 입증하는 사물로서만 자신의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아행은 오직 두 보주만을 지키려고 한 것이고, 그 사실을 이미 이해하고 있던 결승은 그 사물을 이 “땅” 안에서 보존함으로써 그 사물의 가치와 더불어 이 “땅”의 신성함을 세상에 알릴 임무를 다한 것이다.

따라서 「아행과 결승」에서 아행선사는 죽고 결승이 살아남은 것은 ‘이곳이 성소였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가’라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아행과 결승」에서 결승의 행동은 보주를 지켜 나라에 바침으로써 과거에 실재했던 불국토로서의 신라 혹은 낙산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행과 결승의 행위를 구분짓는 기준은 결국 이 “땅”의 과거를 믿고 전수하는 임무를 깨닫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있다.

「아행과 결승」의 이러한 특징은 이 이야기가 쓰여진 시점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아행과 결승」은 위의 인용문에 제시된 것처럼 “그 뒤 100여 년 만에” 벌어진 이야기를 적고 있다. 의상, 원효, 범일의 이야기가 신라를 배경으로 한다면 「아행과 결승」은 고려를 배경으

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서 「아행과 결승」이 갖는 독특한 위상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삼국유사』에 실린 설화들에서 인물들 간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는 드물다. 『삼국유사』의 여러 이야기들에서 차이와 대립은 더 큰 차원의 질서를 통해 통합적으로 인식된다. 이는 비단 인물들 사이의 대립뿐만 아니라 꿈과 현실의 대립 같은 시공간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대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아행과 결승의 대립은 의상과 원효의 대립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행과 결승이 앞선 세 편의 이야기와 갖는 이와 같은 차이점은 「조신」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관점에서 「조신」의 문면에 드러난 두 차례의 깨달음이 의미하는 바와 꿈을 이해하는 모순적인 두 가지 태도를 바라보면 전과는 다른 이해에 다다를 수 있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한 것으로 파악하고 욕망을 일방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태도와, 꿈과 현실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꿈속의 일들, 즉 인생을 “한 꿈”으로 인식하는 태도의 차이는 『삼국유사』에 그려진 세계와 『삼국유사』를 그리는 세계 사이의 거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아행과 결승」에서 결승이 나라에 전하고자 했던 바, 즉 “땅”의 신성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신라시대에 융성한 정토사상을 중심사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토사상은 불교의 인간구제신앙이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예토(穢土)라 부르고 언젠가는 예토를 벗어나 영원히 안락하고 청정한 세계인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³⁰⁾ 인간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뜻하는 정토는 깨달은 자인 부처나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보살이 사는 세계로서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이나 괴로움도 없이 평온하고 안락하다. 따라서 정토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대체로 이야기 속의 특정 공간이 정토임을 깨닫고 그것의 증거물로서 사찰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사찰연기설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스러운 존재 혹은 사물과 공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조신」을 다시 살펴보면 이 이야기 역시 공간의 신성성을 주제로 한 ‘사찰연기설화’라고 할 수 있다. 조신의 깨달음은 먼저 자신의 아이가

30) 장휘옥, 『정토 불교의 세계』(불교시대사, 1997), 164쪽.

신성한 존재였다는 깨달음이고, 이러한 깨달음은 곧 자신을 둘러싼 공간이 신성한 장소였다는 깨달음이다. 돌부처를 발견하기 전까지 조신의 꿈세계와 현실세계의 배경을 이루는 공간은 모두 평범한 일상의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돌부처를 발견함으로써 조신이 현재 몸담고 있는 장소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한다. 겉으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돌부처가 발견됨에 따라 새로운 인식론적 맥락 안에 놓이게 됨으로써 성소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돌부처는 조신으로 하여금 자신이 서 있는 장소가 성소, 즉 정도임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로 작용한다. 돌부처를 발견함으로써 조신은 자신이 존재하던 곳이 정도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꿈과 현실의 모호한 관계 역시 장소의 영험함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꿈조차 현실과 구별되지 않는 신비한 것으로 제시된다는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조신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무상의 깨달음에 더하여 자신을 둘러싼 공간이 신성한 장소임을 깨닫는 것이었으며, ‘사찰연기설화’라는 이 이야기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두 번째 깨달음이 보다 핵심적인 깨달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생무상’, ‘일장춘몽’ 등의 주제에 천착하여 「조신」을 이해하는 것은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에 속하는 이야기 중 하나로서의 「조신」의 특질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처럼 「조신」이 이 땅의 신성함, 자신이 속한 곳이 정도임을 깨닫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의 다섯 편의 이야기 모두를 “성스러운 공간임을 입증하는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상과 원효, 굴산조사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좌상座上의 산꼭대기에 한 쌍의 대나무가 솟아날 것이니, 그 땅에 불전(佛殿)을 짓는 것이 마땅하겠다.” 법사는 그 말을 듣고 굴에서 나오니 과연 대나무가 땅에서 솟아 나왔다. 이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시니 그 원만한 얼굴과 고운 자질이 마치 천연적으로 나온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대나무는 없어졌으므로 그제야 관음의 진신이 거주함을 알았다. 이로 인하여 그 절 이름을 낙산사(洛山寺)라 하고 법사는 그가 받은 두 구슬을 성전(聖殿)에 모셔두고 떠나갔다.³¹⁾ (밑줄 필자)

31) 『삼국유사』, 116쪽.

의상은 “이레 동안 재계”하고 “관음의 용모를 보았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깨달음의 대상은 그곳에 관음이 “거주”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의상이 관음의 진신을 친견했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관음이 거주하는가, 이곳이 과연 신성한 땅인가라는 문제이다. 이곳이 ‘관음의 진신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낙산이 본디 성스러운 공간임을, “관음의 진신이 거주”하는 곳임을 인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원효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관음보살의 현현을 통해 ‘낙산’의 신성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원효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실로 깨달은 것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이 관음보살을 이미 친견한 것이라는 사실, 즉 이곳이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후에 원효법사가 뒤이어 와서 예를 드리려고 하여 처음에 남쪽 교외에 이르니, 논 가운데 흰옷을 입은 한 여인이 버를 베고 있었다. ... 법사가 절에 이르니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또 전에 보던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으므로, 그제야 전에 만났던 성녀(聖女)가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 했다.³²⁾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다. 의상은 관음불을 친견하지만 원효는 실패했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³³⁾ 의상은 말소리만을 들었을 뿐이며 원효가 스스로 나타난 진용(眞容)을 보았다는 의견도 있다.³⁴⁾ 그러나 본고가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두 편의 이야기 모두 이 장소에 관음의 진신이 거주함을 말해준다는 사실이다. 원효나 의상이 관음을 보았든 보지 못했든 간에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이 장소가 관음이 거주하는 신성한 곳이라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굴산조사」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취보살의 불상”이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어머니가 조사에게 이 사실을 아뢰니 조사는 놀랍고 기뻐하여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그 아이가 놀던 다리 밑에 가서 찾으니, 물 속에 돌부처가 하나 있었다. 꺼내어 보니 왼쪽 귀가 떨어져 나가 있어, 전에 본 증과 같았다. 이것이 곧 정취보살의 불상이었다. 이에 점치는 댓가지를 만들어 절 지을 곳을 점쳐보니 낙산 위가 좋다

32) 『삼국유사』, 116-117쪽.

33) 김열규, 앞의 책(1983), 107쪽.

34) 조동일, 앞의 책(1983), 122-123쪽; 유광수, 앞의 논문(2000), 142-145쪽.

하므로, 불전 세 칸을 지어 그 불상을 모셨다.³⁵⁾

결론적으로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이야기들에서 주체의 깨달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공통적으로 「신성친견」의 경험을 통해 「낙산」이라는 장소의 영험함을 인식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이야기들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의 근본적인 대상은 바로 「낙산」을 둘러싼 공간의 신성함이라는 것이다. 「이 땅」이 바로 성스러운 공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다섯 편의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특질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신」이야기를 고찰한다면 「조신」의 서사적 특질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신」이 왜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 묶여 다른 이야기들과 함께 적혀 있는지도 충분히 해명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본고의 이러한 고찰은 『삼국유사』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것은 『삼국유사』가 이야기하는 세계와 『삼국유사』를 이야기하는 세계의 구별이 『삼국유사』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아행과 결승」은 낙산이라는 장소의 영험함을 입증하는 한편으로 영험함의 역사성이라는 문제를 일깨운다. 간단히 말해 불국토로서의 신라와 100년 후 고려의 세계가 어떻게 구별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아행과 결승의 대립 그리고 「조신」 말미의 논평과 찬시에 나타난 꿈과 현실의 대립을 해석하는 새로운 틀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조신」의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논평과 찬사에서 보이는 현실이나 욕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삼국유사』를 이야기하는 시대의 세계 인식과 맞닿아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삼국유사』 탐상편의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조신」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신」의 주제를 인생무상으로 보고, 이를 이후에 생산된 몽유서사의 원형으로 인식해 온 경향이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체계적 이해를 어렵게 만든 것 같다. 「조신」의

35) 『삼국유사』, 119쪽.

중심 사상이 인생을 일장춘몽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는 「조신」의 서사 구조를 ‘현실 - 꿈 - 현실’의 구조로 바라본 결과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꿈과 현실의 명백한 구분 아래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이 설화의 주제를 인생무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신」에서 꿈과 현실이 분명히 구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 텍스트는 오히려 꿈과 현실의 모호한 결합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실 - 꿈 - 현실’의 삼단구조 및 이와 같은 서사 구조를 토대로 산출된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텍스트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지점을 탐색한 결과 그 지점은 조신이 인생을 무상하다고 깨닫는 각몽의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부처임을, 즉 자신의 아이를 묻은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돌부처를 발견한 순간임을 알아냈다. 조신에게 결정적인 각성의 순간은 꿈속에서 죽은 자신의 아이가 곧 성스러운 존재이며, 자신을 둘러싼 공간이 성소임을 깨닫는 때라는 것이다.

이처럼 조신의 깨달음이 공간과 관계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같은 조에 실려 있는 나머지 네 편의 설화를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의상」, 「원효」, 「굴산조사」의 이야기를 모두 ‘신성친견담’으로 읽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신성성을 드러낸 기호들을 뒤늦게 해석함으로써, 나중에서야 자신이 만난 존재가 부처였음을 깨닫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다. 『삼국유사』에는 이러한 지연을 다룬 이야기가 여러 편 있기에 「의상」, 「원효」, 「굴산조사」 그리고 「조신」의 이야기를 ‘신성친견담’으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특징을 모두 아우를 수 없었으며, 특히 「아행과 결승」 편을 포함시켜 함께 이해할 수 없었다. 본고에서 「아행과 결승」을 검토한 결과 이 이야기는 ‘장소’와 관련된 깨달음을 과제로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조신」을 다시 살펴보면 조신의 깨달음은 먼저 자신의 아이가 신성한 존재였다는 깨달음이고, 이러한 깨달음은 곧 자신을 둘러싼 공간이 신성한 장소였다는 깨달음임을 알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꿈과 현실의 관계가 모호한 것 역시 장소의 신성함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실 - 꿈 - 현실’의 삼단구조로 이 텍스트를 이해하던 것에서 ‘깨달음 이전 - 이후’ 또는

‘일상적 공간-성스러운 공간’의 구조로 이 텍스트를 재해석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에 포함된 다섯 편의 설화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데에는 조신 설화가 우리 몽유 서사의 기원 혹은 원형이라거나 원형이어야 한다는 인식과 그에 따라 몽유 서사에 나타난 꿈의 성격을 일관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의도가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것이다.³⁶⁾

또한 차라리 ‘욕망’이나 ‘꿈’ 등의 모티프에 대한 전형적 인식과 무관한 텍스트로 『삼국유사』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 판단된다.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을 비롯한 많은 다른 이야기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삼국유사』의 세계 속에서 ‘욕망’은 단순히 버려야 하거나 극복해야만 하는 부정적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것이 더욱 긍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신이 김씨 처녀를 욕망했다는 사실 자체도 부정적으로만 평가될 수는 없을 듯하다. 오히려 그러한 욕망을 계기로 신성친견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하자면 『삼국유사』가 이야기하는 시대와 『삼국유사』를 이야기하는 시대의 차이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삼국유사』에는 꿈과 현실, 욕망하는 자와 욕망하지 않는 자의 차이와 대립을 초월하는, 즉 역설적인 깨달음의 장이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대립들이 명확하게 문면에 드러난 이야기들도 함께 존재하며, 일연의 것으로 보이는 찬사와 논평들에서 이러한 대립적 인식이 발견되곤 한다. 이는 곧 서술 내용과 서술 행위의 구분을 통해 규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삼국유사』를 단순히 하나의 텍스트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신라시대의 사유방식을 인식론적 배경으로 삼은 이야기들과 고려시대의 사유방식을 배경으로 삼은 이야기들에 대한 면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36) “보다 유연한 해석학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령 원형이니 전상이니 기층이니 하는 말들을 통해 고전문학이 갖는 특징을 강조하는 흐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송효섭, 「고전문학의 위기와 담론 쇄신의 실천」, 『한국고전연구』 18집 (2008), 148쪽.

참 고 문 헌

- 김만중, 박성의 註釋, 「九雲夢」. 『九雲夢·謝氏南征記』, 정음사, 1986.
- 김시습, 이재호 역, 『금오신화』. 솔, 1998.
- 일연, 이재호 역, 『삼국유사』. 솔, 1997.
- 고운기, 「일연의 세계인식과 시문학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3.
- 김열규, 「〈낙산이성〉과 그 신비체험의 서술구조」. 『삼국유사 연구(상)』, 영남대 민족문화 연구소, 1983.
- 김정경, 「연기론의 서사화」. 『시학과 언어학』 2호, 2001, 231-251쪽.
- 송효섭, 「고전문학의 위기와 담론 채신의 실천」. 『한국고전연구』 18집, 2008, 137-158쪽.
- 송효섭, 『『삼국유사』의 기호체계』. 『설화의 기호학』, 민음사, 1999.
- 신연우, 「『三國遺事』〈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의 분석적 이해」. 『한국민속학』 33권, 2001, 175-198쪽.
- _____, 「曹洞五位의 시각으로 본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條의 이해」. 『한국사상과 문화』 제18집, 2002, 279-299쪽.
- 오대혁, 「『調信傳』의 구조와 형성배경」. 『한국문학연구』 제20집, 1998, 349-386쪽.
- 유광수, 「만남과 깨달음으로 본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의 의미」. 『연세어문학』 32, 2000, 115-146쪽.
- 윤예영, 「삼국유사 신성친현담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장휘옥, 『정토 불교의 세계』. 불교시대사, 1997.
- 정소영, 「『삼국유사』 설화에 나타난 인간구원」. 『한국언어문화학회』 59권 12호, 2006, 289-316쪽.
- 조동일, 「삼국유사 불교설화와 숭고하고 비속한 삶」. 『삼국유사 연구(상)』,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 조현우,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의 은유적 이해」. 『한국고전연구』 11집, 2005, 186-211쪽.

국 문 요 약

본고에서는 『삼국유사』 탐상편의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조신」 설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조신의 텍스트는 꿈과 현실의 모호한 결합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현실-꿈-현실’의 삼단구조 및 이와 같은 서사구조를 토대로 산출된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텍스트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지점을 탐색한 결과 그 지점은 조신이 인생을 무상하다고 깨닫는 각몽의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부처임을, 즉 자신의 아이를 묻은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돌부처를 발견한 순간임을 알아냈다. 조신에게 결정적인 각성의 순간은 꿈속에서 죽은 자신의 아이가 곧 성스러운 존재이며, 자신을 둘러싼 공간이 성소임을 깨닫는 때라는 것이다.

이처럼 조신의 깨달음이 공간과 관계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같은 조에 실려 있는 나머지 네 편의 설화를 함께 검토했다. 그 결과 「낙산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의 이야기들에서 주체의 깨달음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공통적으로 ‘신성친견’의 경험을 통해 ‘낙산’이라는 장소의 영험함을 인식하는 것이었음을 알아냈다. 지금까지 ‘현실-꿈-현실’의 삼단구조로 조신 설화를 이해하던 것에서 ‘깨달음 이전-이후’ 또는 ‘일상적 공간-성스러운 공간’의 구조로 이 텍스트를 재해석함으로써, 그리고 『삼국유사』가 이야기하는 세계와 『삼국유사』를 이야기하는 세계의 구별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투고일 2009. 4. 10.

수정일 2009. 12. 2.

게재 확정일 2009. 12. 6.

주제어(keyword) 삼국유사(Samgookyousa), 조신(Choshin), 몽유서사(somnambulate narrative), 신성친견(holiness witness), 사찰연기(temple pratiyasamutpada)